

백두산 관광 有感

권오덕 | 전 대전일보 주필



나는 지난 7월 중순 정년퇴임한 두 교수친구 부부와 함께 버르고 버르던 백두산을 다녀왔다. 백두산에 대한 한국인들의 동경은 유별난데, 나 역시 마찬가지로 생전에 한번은 꼭 가보려 했던 곳이다. 5박6일 일정 중 꼬박 하루씩 인천-단둥 간 배안에서 잤다. 이번 백두산여행은 아쉽게도 비 때문에 천지를 못 봤지만 나름대로 의미는 있었다.

2,750m 높이의 백두산을 찾는 관광객은 한해 170만 명에 이른다. 중국 영토를 통해 올라가므로 중국관광객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한국인으로 연간 10만 명, 하루 270명꼴이 백두산을 다녀간다. 동남아의 화교나 대만인을 제외하면 역시 한국인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래서 백두산 곳곳서 들리는 건 온통 중국말과 한국말뿐이었다. 백두산을 제 나라 땅으로 못가고 중국 땅을 거쳐야해 무척 가슴이 아팠다.

백두산(장백산)을 관할하는 길림성은 한반도보다 약간 작은 19만 km²에 인구 2,700만으로 우리 동포가 가장 많이 사는 성이다. 백두산 입산료는 1인당 4만원으로 관광수입만도 엄청나다. 그런데 북한은 6·25전쟁 참전대가로 백두산의 절반을 중국에 주었고, 압록강의 10여개 섬 중 절반가량을 중국에 넘겼더니 분통터질 노릇이다.

한국인 백두산 1년 10만 명 하루 270명 다녀가

백두산은 1년의 절반 정도 눈이 내린다고 한다. 우리가 갔을 때도 백두산 주변에는 잔설이 남

아 있었다. 백두산은 북파, 서파, 남파 등 세 가지 길이 있는데 우리는 서파코스로 갔다. 길목에는 활짝 핀 야생화가 끝없이 이어져 우리를 반기고 있었다. 하지만 새벽부터 줄기차게 내리기 시작한 비는 백두산정상까지 계속돼 우리를 실망케 했다.

흔히 백두산 천지는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는다고 한다. '백번 가야 두 번 정도 보여준다' 해서 백두산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다. 그만큼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맑은 날씨가 금방 변해 먹구름이 끼고 갑자기 비오는 경우가 많다. 또 비 오다가도 갑자기 하늘이 개어 천지를 볼 수도 있다는데, 우리는 끝내 백두산 천지를 보지 못했다.

'민족의 영산'이라는 백두산의 천지를 못 본 아쉬움은 있었지만 옛 고구려 유적지를 돌아봤고, 중국 동북 3성의 하나인 요령성(遼寧省)과 길림성(吉林省)을 접하며 중국의 농촌과 그들의 동북공정(東北工程)을 엿볼 수 있었다. 또 압록강너머 북한의 산하를 살필 수 있었으며 현지 가이드를 통해 북한의 실정을 자세히 들을 수 있어 유익했다.

무엇보다 옛 고구려의 수도와 유적 등을 직접 볼 수 있었음은 큰 수확이었다. 길림성의 백두산 가는 길목의 통화 시에서 두시간거리에 옛 고구려의 수도 집안시(集安市)가 있다. 시내에서 옥수수 밭을 지나 좁은 골목길을 300여 미터 가다보면 광개토대왕 왕릉과 능비, 장수왕릉과 장군총, 옛 도읍지 국내성 성터 등을 볼 수 있다. 광개토왕의 능비는 중국정부가 보호를 위해 유리벽을 쳐 놓았다.

그런데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중국정부가 관리하는 이들 유적은 허술하기 짝이 없어 가슴이 아팠다. 집안 시 일대는 2004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지만, 왜 그리 초라한지 1천 500여 년 전 동아시아를 호령했던 고구려인의 기개는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 청사보다 더 허술해 가슴이 저렸다. 같은 삼국시대를 살았던 신라의 경주, 백제의 부여 공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중국의 옛 고구려유적 관리허술 가슴 아파

중국을 지난 2002년부터 고구려사와 발해사 등을 중국사로 편입시키는 역사왜곡을 대대적으로 펼쳐왔다. 중국은 고대사뿐만 아니라 6·25등 현대사도 왜곡했다. 6·25전쟁을 남한과 미국이 일으켰다는 식이다. 오죽하면 중국의 중앙CCTV의 역사담당 유명 강사가 동북공정을

신랄하게 비판했겠는가. 그 강사는 최근 "일본교과서도 왜곡했지만 중국만큼은 아니다"라며 중국역사교과서의 진실은 5%도 안 되며 대부분은 허구라고 비판했다.

옛 고구려 유적을 관광한 후 우리는 옥수수 밭길을 거쳐 북한식당에 도착해 점심식사를 했는데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가수과 무용수들이 나와 노래하고 춤추는데 왜 그렇게 가련해보이는지 돈이라도 주고 싶었다. 나중에 들으니 가수들의 노래는 실제 부른 게 아니고 모두가 립싱크였다고 한다. 매점의 북한산 술과 기념품을 보니 너무 조잡해 살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번 관광에서 우리를 안내한 현지 가이드는 평양주재 중국외교관의 아들로 약 30세 정도 돼 보였다. 그는 평양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초중등학교를 나온 후 북한의 명문대인 김책공대를 졸업한 엘리트였다. 그는 한 해 6개월은 평양, 6개월은 중국 단둥에 나와 가이드로 돈을 벌고 있었다. 수입이 꽤나 된다고 자랑했다. 단정한 용모에 북한 사투리를 별로 안 쓰는데다 언변이 뛰어나 그야말로 관광객을 가지고(?) 놀았다. 10년 간 백두산가이드만 했으니 그럴 법도 했다.

이번에 백두산에 가면서 중국의 농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몇 시간을 버스타고 가면서 끝없이 펼쳐진 옥수수 밭과 우거진 삼림을 보았다. 중국 동북지방 농촌은 생각보다 살기가 나은 것 같이 보였으나 우리 농촌에 비하면 아직은 멀었다는 느낌이었다. 특히 버스휴게소의 화장실은 우리의 50년대 중반과 비슷해 필설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낙후되고 몹시 더러웠다. 그래서 여자들은 옥수수 밭에서 실례했고 남자들은 길가에 나가 소변을 볼 수밖에 없었다. 고속도로는 통행료가 비싼 탓인지 몇 시간을 달려도 차를 볼 수가 없었다.

중국은 10-20년 후를 대비해 고속도로를 계속 건설하고 있었다. 60년대 후반 우리나라 고속도로 건설 당시 극렬하게 반대했던 일이 생각난다. 마지막 날 우리는 양만춘장군이 당태종의 10만 대군을 몰리친 안시성(중국명 호산장성)에 올라 북한의 마을(의주)과 압록강 등을 내려다 봤다. 북한의 산은 나무가 없어 벌거숭이 산이었다. 북한에 비가 조금만 와도 큰 물난리가 나는 이유를 알겠다. 산에는 옥수수과 채소 등을 심어 북한의 식량난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 수 있게 했다.

압록강서 북한 소년병 보고 연민의 정 느껴

가다 오다 압록강하류에 있는 위화도(威化島)와 부서진 철교를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고려 말 요동정벌에 나선 이성계가 왕의 명을 어기고 회군한 바로 그 섬이 유명한 위화도다. 이성계는 당시 회군하여 정권실세로 등장, 조선창업의 기틀을 닦았다. 압록강다리는 1911년과 1943년에 지은 두 개가 있다. 먼저 지은 다리는 6·25전쟁 때 미군폭격에 의해 두 동강이나 압록강 단교(斷橋)로 불리고, 나중에 건설된 다리는 지난 1990년 조중우의교(朝中友誼橋)로 개칭했다.

마지막 날 우리는 압록강 지류인 일보하(一步河)에서 조그만 배에 올랐다. 갈대숲을 옆에 두고 10여명이 탄 배가 물길을 따라 10여 분간 내려가자 국경너머 철조망에 갑자기 북한 병사 2명이 나타나 오라고 손짓을 하는 것이었다. 이윽고 한명은 철조망 옆에서 망을 보고 한명은 철조망을 뛰어 넘어 잽싸게 물가로 다가왔다.

배가 기슭에 닿자 북한병사는 우리 배 쪽으로 다가왔다. 그는 16-17세에 불과한 어린 소년같이 보였다. 키와 몸집은 작고 말라 입은 군복이 험명했다. 가름한 얼굴은 예쁘장해 연민의 정을 느끼게 했다. 일행은 담배며 과자 돈 등을 그에게 건네주었다. 나도 약간의 돈을 주며 "참고 기다려라. 건강하게 잘 지내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격려했다.

뒤에 앉아서 지켜보던 내 아내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나도 눈물이 났다. 뿐만 아니라 같은 배에 탔던 모든 관광객들이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어린 청소년이 잘못 북한에 태어나 이런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윽고 그는 철조망을 넘어 동료병사와 함께 사라졌다. 나는 있는 돈을 더 못 준 게 한스러웠다.

물론 우리가 건네준 금품들은 얼마 안 되지만 저 혼자 갖는 게 아니라 같은 부대원, 아니 장교들까지 모두 나누어 가질 것이 분명하다. 아니 요즘의 북한사정으로 미루어 국가에 바칠지도 모르겠다. 나는 30분 정도 배를 타고 돌아오면서도 불쌍한 북한 군인이 자꾸 생각났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 저들이 총을 쏘면 어쩌나 하면서 두근대는 가슴을 쓸어안고 나도 모르게 연신 뒤를 돌아보았다.